

깨끗해진 농촌 전국 '최우수'

순창군, 2016년도 행복홈씨 입양사업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받아

순창군의 깨끗해진 농촌환경이 전국 최우수 성적을 받았다.

군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2016년도 전국 지자체 행복홈씨 입양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234개 자치단체 중 전국 2위 실적이다.

행복홈씨 입양사업은 2015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내가 사는 마을은 내 손으로 가꾼다'는 기치아래 지역 민간단체에서 공원이나 하천 등 지역의 일정한 구간을 담당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꽃을 심거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을 새롭게 가꾸는 사업이다.

순창군은 47개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행복홈씨입양사업 추진연합체(회장 김종국)를 구성해 행복홈씨 입양사업의 효율성을 높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합회 참여회원만 1천여명에 이르며 연간 138회 3,510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실적을 거뒀다.

실제 순창군은 지난해 47개 사회단체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MOU를 체결하고 두차례의 추진연합회의 개최, 연합사회단체 모두가 참여하는 일제 정화활동 추진, 인터넷 홈페이지 '행복홈씨' 게시판 운영 등을 추진했다.

두 번째 순창군의 장점은 그동안 순

창군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클린순창 운동과 연계 추진해 농촌환경 개선 효과가 극대화 됐다는 점이다.

순창군은 이미 지난 2013년부터 민간이 하나씩 클린순창 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폐비닐 수거 551톤, 농약병 수거 15만개를 수거하는 실적을 거뒀다.

또 음식물쓰레기 감량, 쓰레기 분리배출이 생활화돼 농촌환경 개선 운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행복홈씨 입양사업의 확대를 위해 민간단체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등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첫 시행되는 벼 병해충 항공방제, 꼭 신청하세요'

남원 농기센터, 남원농협 등 4곳 통해 이달 말까지 추가 신청접수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는 벼병해충 항공방제사업 추진을 위해 4개 지역농협(남원 농협, 운봉 농협, 지리산 농협, 춘향골 농협)을 통해 농가 신청을 받는다. 남원시의 벼 병해충 항공방제 사업은 4개 지역농협을 주축으로 기 조성된 남원시항공방제 추진단에서 시행한다.

이에 따라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5월 31일까지 관할지 농협지점에 신청을 마쳐야한다. 지원 내용은 무인 항공방제를 위한 약제비와 방제용역비이다.

남원시 항공방제사업 예상면적은

7,430ha로 이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항공방제 면적 중 국내 최대 방제면적에 해당한다. 사업비는 1,357,461천원(시비 30%, 농협 10%, 정부 60%)이며 항공방제 예정 시기는 벼 출수기를 앞 둔 7월말~8월초, 방제 병해충은 지역 별로 일부 차이는 있겠으나 도열병, 문고병, 먹노린재 등이 된다.

남원시의 이번 항공방제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해 온 벼 병해충 사전방제(육묘상 처리제)사업과 더불어 벼 병해충 방제에 기여하기 위한 남원시의 중점 추진사업에 해당한다.

올해 항공방제사업이 도입됨으로써

이양 전 육묘상 처리제의 초기 방제에 더해 출수기 방제까지 이중의 방어벽을 구축, 남원의 벼 재배 농업인은 별다른 돌발사항이 없는 한 2회의 방제만으로 사실상 분담 방제를 생략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담당자인 농업기술센터 조동석 지도사는 "올해 첫 시행되는 항공방제사업이나만큼 소외 농업인이 없도록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하며, 희망 농업인 모두가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를 비롯한 유관기관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동자바위', 임실 천담마을 주민 곁으로

지역 명물 사라져 주민·전문가 자문 구해 복원

'사냥꾼 총각과 나물 캐는 처녀'의 이무지 못한 슬픈 사랑의 이야기가 서린 동자바위가 주민 곁으로 돌아왔다.

임실군 덕치면 천담마을에서 동북쪽으로 약 500m 지점에 석불처럼 생긴 동자바위는 모습이 천진스러워 마치 시골의 나무꾼을 연상케 한다.

동자바위는 부부간 공방살이 할 때 돌을 쪼아다 음식물에 섞어 먹이던 공방살이 풀린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특특한 모양새와 전설로 지역 명물로서 주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동자바위는 어느날 갑자기 사라져 주민의 안타까움을 샀다.

그러던 중 운주 한국지역문화 생태연구소장이 쓴 '사연 있는 지역 이야기'를 통해 복원 필요성이 대두됐다.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이인우(썬) 우리들 대표이사(한국조경석협회 회장)는 주민들의 고증과 학계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지난 2월 자비를 들여 동자바위 복원 작업에 착수했다.

17일 심민 군수, 이인우 대표, 정강희 작가, 김용택 시인,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담마을에서 복원식이 개최됐다.

우여곡절 끝에 '동자바위'는 높이 1.6m, 폭 1.3m 크기로 완료가 잦은 마을 모퉁이로 돌아왔다.

이인우 대표이사는 "지역의 열이 담긴 동자바위의 원형 복원을 위해 사료를 찾고 주민의견 정취를 비롯해 전문가의 감증을 받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지역명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회의

임실군은 17일 '2017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군청 주민복지과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 임실교육지원청,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8개 민·관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2016년도 사업실적과 2017년 계획 보고를 비롯해 연대 활성화 방안, 유관기관 관련사업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폭력위기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실무사례집'을 운영하고 아동·여성 폭력예방 캠페인 전개 및 예방교육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의리기관 및 의약품 점검

임실군은 18일부터 6월16일까지 의리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8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군 보건지원은 의약품 안전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위반하기 쉬운 기본 사항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등 조제에 관한 사항 ▲시설환경 및 안전시설, 위생상태 등 적정 여부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행위 여부 등 관련법 여부를 집중 지도할 예정이다.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주의 조치를 취하고 위반이 확실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신덕면, '동네 한바퀴' 사업 운영

임실군 신덕면행복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환기·최종연)는 본격적인 '동네한바퀴' 사업에 나섰다.

'동네한바퀴'는 낮은 복지체감도 극복을 위해 협의체가 직접 마을을 찾아 복지대상자를 발굴·상당하는 특화사업이다.

17일 위원, 복지이장, 통합보건담당과 사회복지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신덕면 삼길리 마을을 찾았다.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 3가구를 방문해 애로사항과 고충을 청취하고 백미와 의료용품 등을 전달했다.

최종연 위원장은 "격월로 각 마을의 복지대상자를 찾아갈 계획"이라며 "수혜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위기가정 아동 3가구에 공부방 선물

남원시(희망복지지원단)는 17일 GS칼텍스 전북지사과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 후원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 꿈을 키워가는 위기가정 아동 3세대에 게 공부방을 선물했다.

공부방을 선물 받은 아동들은 주거 환경에 따라 도배, 장판, 책상, 침대, 책꽂이, 옷장, 수납장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GS칼텍스 전북지사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공부방 조성 기금 800만원을 마련하여 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아동의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도배, 장판, 책상, 침대, 옷장 등을 교체 해 주었다.

GS칼텍스 전북지사장(김광석)은 "직원들과 함께 직접 아이를 위한 공부방을 만들어 줄 수 있어서 정말 보람"이었다.며, "아이들이 깨끗한 공부방에서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생애 첫 공부방을 갖게 된 아이들은 "나만의 희망 공간이 생겨서 좋다"라며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앞으로 남원시 희망복지지원단은 공부방을 선물 받은 아동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자립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조현익 주민복지과장은 "아이들의 공부방이 꿈과 희망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키우는 공간이 되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인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풀무원 내뽀 다스림 교육 인기

순창군이 풀무원과 손잡고 추진하는 '내뽀 다스림 교육'이 인기를 끌며 올해 10회에서 12회 추가 편성을 확정했다.

군은 순창 농·특산물을 활용한 식단과 건강자원을 활용한 당뇨 및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내뽀다스림' 3회차 교육을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동안 건강장수연구소 일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 2차 교육생들의 호응도가 높아 일정을 앞당겨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교육에 이어 진행하며 풀무원 건강생활 임원 등이 참여해 진행할 계획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